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양지웅 라파엘, 최고은 소피아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심성신 알렉산드라, 전지나 베아트리체	교무금 : \$350
금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봉헌금 : \$172
다음 주 미사 복사: 조성익 토마스 모어	합계 : \$522
금주 미사해설: 김지원 카린	봉헌봉사: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윤지희 테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다음주 봉헌봉사: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김지원 카린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6월 15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6월 9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6월 8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느 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백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열심히 퍼 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아이와, 삼위일체 하느님을 머리로 이해하겠다는 내 자신 중 누가 멍청한 자인가?” 하고 자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아들의 사랑 또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따르셨고, 생명까지도 바치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 분 사이를 오가는 완전한 사랑의 움직임은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의 세 위격은 가장 완전한 친교와 상호 증여로 살아가십니다. 한 분이 다른 분과 함께, 한 분이 다른 분을 위해, 한 분이 다른 분 안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본받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교회 헌장 4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일치하며 산다면 삼위일체의 친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친교가 부족한 교회는 그 심장에 사랑이 식어 있다는 표지입니다. 완전한 일치를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삼위일체 대축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6월 2일

<제 1 독서> 신명기 4,32-34,39-40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14-17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앞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81 봉헌:217 성체:197 파견:83



나, 너, 우리

이 정 젤마노 신부/ 인천교구

우리는 매일의 삶 안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옷을 입고 외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오면 동료와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번 달에는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 아래 단순하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매 순간순간은 긴장된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은 필연적으로 ‘너’를 부르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던 나와 너는 ‘우리’라는 하나의 이름이 되어 선택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알게 모르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든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잊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는다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부·성자·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몸을 이루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넓은 바닷물을 자그마한 컵 안에 모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컵은 바닷물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컵을 바닷물 속에 넣으면 바다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룰 때 삼위일체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나는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공지사항

1. 유성모 요셉 신부님,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현재까지의 기부금 모금액: \$5,317
3. 2012 년 여름 캠프
 - 일시 : 6 월 29 일~7 월 1 일 (2 박 3 일)
 - 장소 : Pine Lake
 - 비용 : 추후 공지
4. 라이스볼 총 모금액: \$464.08,
 - 한진 형제님을 통해 CRS (Catholic Relief Services)로 기부
5. 매일미사 금액 재 조정: \$5
6. 제 23 차 세계 청년 대회 및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 일시 : 7 월 29 일~8 월 12 일 (14 박 15 일)
 - 장소 및 순례 지역 : 이태리, 프랑스, 드브로브닉, 메주고리에
 - 비용 : JFK 공항 출발, \$3,750 (선착순 250 명)
 - 홈페이지 참조 : www.qpmm.org

사랑의 언어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우리 교회는 “본체로서는 한 분이시지만 실제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니체아 신경 참조 1) 하느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대축일로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이 결국 거룩한 세 위격의 역동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콘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서로 부드러운 친교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위격의 모습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따스한 눈빛이 서로를 향하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서로를 만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방의 삼위일체 이콘은 삼위일체 신비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교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한결같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신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데 어색할 뿐 아니라 인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일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결혼 심리 상담 전문가인 게리 채프먼은 자신의 상담경험을 토대로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각 사람에게는 사랑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구사하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 접촉” 등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사하는 사랑의 방법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잘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엮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비록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을 체득해 나가는 사람만이 하느님 사랑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